

보도사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영상자료원, 전쟁과 선전의 기록을 열다 : 미국 NA II 소장 노획영상 컬렉션 공개

지난 24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2관에서 수집한 노획영상 컬렉션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서 공개
1930-40년대 소련·북한·일본 선전영상 37편으로 구성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기록영상 컬렉션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의 2024년 마지막 온라인 컬렉션이 공개됐다. 이번 컬렉션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2관(NA II)의 '국립공문서관 해외 노획 기록물' 자료군(RG 242)에서 수집한 영상자료 중 1930~40년대 소련, 북한, 일본에서 제작된 선전영상 37편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의 기록영상 컬렉션 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 '해외 노획 필름'을 집중 분석하다

이번에 공개된 컬렉션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2관(NA II)의 '국립공문서관 해외 노획 기록물'자료군(RG 242) 중 '육군 정보참모부 필름'시리즈(242-MID)에 속한 자료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후와 6.25전쟁 시기에 미군이 일본과 북한 지역에서 노획하여 정보참모부(G2 MID)에 의해 관리되던 필름들을 수록하고 있다. 일부 영상들은 이미 국내에 공개되어 있으나 이렇게 '노획 선전필름'의 카테고리로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영상자료원의 이번 컬렉션이 처음이다. 총 37편의 수록 영상 중 일본 제작 노획영상 6편은 자료집과 함께 최선의 화질로 제공된다. 반면, 소련과 북한

등 공산권에서 제작한 31편은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VOD 제공이 제한되지만, 영상을 직접 보지 않아도 전체 맥락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장면 설명과 내레이션 채록문이 상세히 담긴 자료집이 제공된다.

□ 대중 선전선동 기법의 생생한 사례 확인

특히 이번 노획영상 컬렉션은 기록영상필름이 과거 일제의 천황제 파시즘, 이탈리아 파시즘, 소비에트연방 스탈린주의의 대중 전파 및 선전선동을 위해 어떻게 제작, 상영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각 영상들은 목표하는 대중의 현황과 성향에 정교하게 맞도록 기획됐으며, 선전 내용의 명분과 당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되는 전형적인 전략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해방기의 북한은 이러한 앞선 선전전략을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제작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와 별도로 '선전 선진국' 소련의 뉴스릴, 공보물 등을 들여와 내레이션을 더빙하고 자막을 삽입하여 북한 지역 내에 보급했음을 알 수 있다.

수록된 영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이 제공되며, 이 중 6편은 VOD를 통해 당대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이 필름을 대중선전용 매체로 활용했던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영상자료원은 이번 컬렉션이 고전적인 프로파간다 연구의 영상 문헌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전형적인 선전기법의 사례를 되짚어보고 그 역사적 피해를 복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NA II 소장 기록영상 컬렉션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KMDB 기록영상 컬렉션 <미국 NA II 소장 노획영상 컬렉션>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view?colId=881&isLooked=false>

[참고자료] 영상 주요 장면



<왜 중국을 보호하는가?>(NA II, 242-MID-3247) - 일본이 중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루거우차오(노구교)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중국이 선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일정서로 인해 좌절됐다'는 내용의 내레이션에 이어, 중국 국민당의 상하이 폭격에 대해 비난하는 신문기사를 보여주는 장면.



<니혼 뉴스 제 7호> (NA II, 242-MID-J-27) -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중국 동남해안 주요 요충지인 진해를 포격하며 상륙하는 장면과 함께, "화염의 포성이 울려 퍼져 동중국해를 뒤흔듭니다. 각 함정은 우리의 맹공을 막을 방법이 없어, 적은 재빠르게도 후퇴하고, 육전대는 함성을 지르며 상륙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이어짐.



<동양의 전투 (BATTAGLIA D'ORIENT)> (NA II, 242-MID-J-70) - 1938년 일본군의 중국 광저우 진격 과정을 '핍박받는 민중을 해방하는 정의로운 전쟁'으로 선전하는 영상. 이 장면은 가난에 찌든 중국 농민들이 오히려 일본군에게 물을 먹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부분임.



<만주개척 (拓け滿州)> (NA II, 242-MID-6027) - 일제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북만주 농업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한 일본어 선전영화로서, '만주국과 일본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일본민족이 그 책임을 다하자'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음. 이 장면은 앞선 이주사업의 경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음.